

# 너너너



## 요약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있던 중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책은 그림과 대화가 없어 재미가 없었고, 생각에 잠긴 그녀는 데이지 꽃으로 화환을 만들까 생각하던 차에 하얀 토끼를 발견합니다. 특이한 점은 토끼가 "맙소사! 너무 늦었어!"라고 중얼거리며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가 굴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녀는 길고 깊은 굴을 떨어지며 흥미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지하 세계로의 여행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 본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제1장: 토끼굴 아래로 앨리스는 언니 곁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몹시 지루했다. 한두 번 언니 책을 슬쩍 들여다보았지만,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은 무슨 재미로 읽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다면, 그런 책은 무슨 소용이람!'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날씨가 매우 더웠기에 그녀는 잠깐 졸릴 지경이었다. 데이지 꽃을 따서 화환을 만들까 생각하던 찰나, 분홍 눈을 가진 하얀 토끼가 그녀 곁을 지나쳤다. 이건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기에, 앨리스는 토끼가 "맙소사! 너무 늦었어!"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들여다보고 달려가는 것을 본 순간, 앨리스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그 광경이 너무 궁금해서, 토끼를 따라 들판을 건너갔다. 마침내 토끼가 울타리 밑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자, 앨리스도 주저하지 않고 그 뒤를 따라 굴 속으로 뛰어들었다. 굴은 길고 깊었다. 앨리스는 굴 속으로 한 없이 떨어졌다. 처음엔 놀랐지만,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마치 지하 세계로 여행을 가는 기분이었다. 벽에는 책장과 지도가 보였고,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그것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